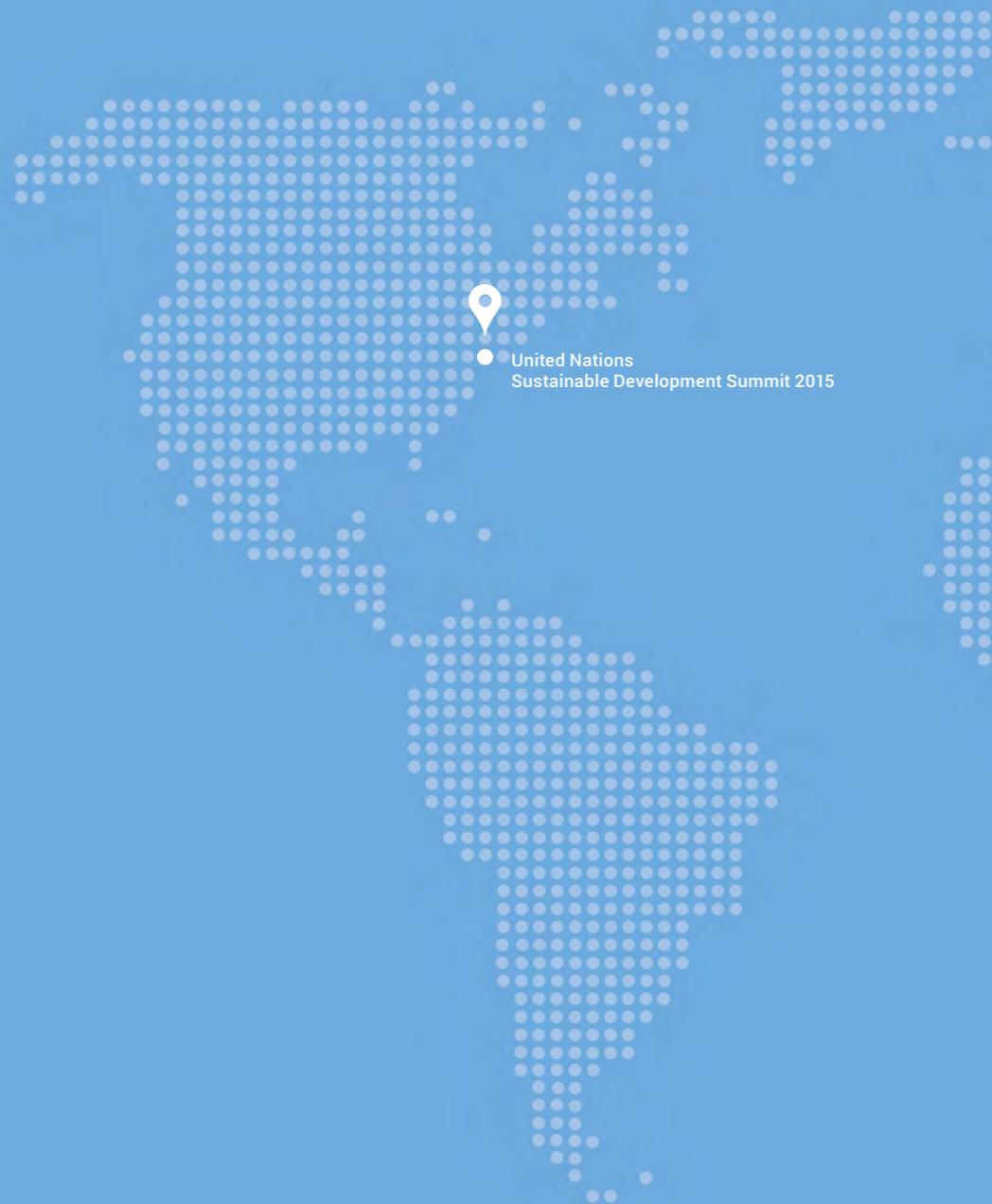


2015

박근혜 대통령
유엔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유엔총회 참석





2015
박근혜 대통령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

2015.09.25.부터
2015.09.30.까지



제70차 유엔 총회 무대에서

중견
소프트
파워

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발견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다자외교의 꽃'으로 불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해 3박 4일 동안의 일정을 통해 '중견 소프트 파워'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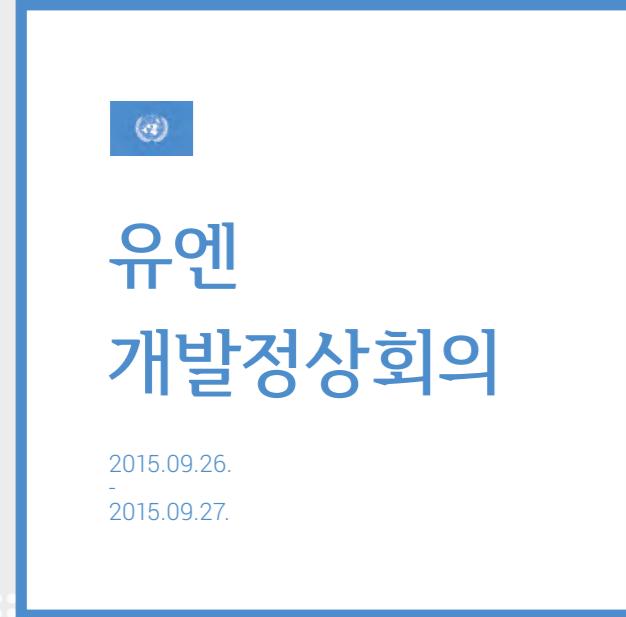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개최된 <제70차 유엔 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수의 <유엔 개발정상회의>와 <유엔 총회> 관련 일정 외에도 3개국과의 정상회담 및 석학들과의 만찬, 뉴욕 문화원 방문 등의 일정을 이어가며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유엔과 한국의 긴밀한 관계를 평가하고, 유엔의 미래에 대한 기여의지를 밝혔으며, 북한·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통해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코자 하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또,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챕터를 환영하는 가운데 개발정상회의 본회의 참석 및 상호대화 세션 공동 주제 등을 통해 교육과 새마을운동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핵심 어젠다인 개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기여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금번 유엔총회 참석은 개발, 기후변화, 교육, 평화유지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할 및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논의를 선도해 가는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함으로써 '중견 소프트 파워'를 널리 알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정상회의

관련 일정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

유엔
개발정상회의
상호대화

글로벌교육
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



“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현실이 되려면 강력한 후속조치와 함께 평가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신뢰성 있는 견실한 가체 제 구축을 위해서 건설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인류의 존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향한 15년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라는 인류의 여정이 위대한 결실을 이뤄낼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 중



‘건설적 기여자’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다



1 2
유엔 개발정상회의 | 20150926

3 4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 | 20150927



■ 항후 15년간(2016-2030) 글로벌 개발 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채택하기 위해 개최된 <유엔 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성공적 출범을 축하하고, 새로운 개발의제 이행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견국으로서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실천적 기여방안으로 ▲‘개도국의 소녀들을 지원하는 더 나은 삶’ 구상 ▲OECD 및 UNDP와 공동으로 구축 중인 신(新)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서의 ‘새마을운동’ 등을 소개함으로써 개발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건설적 기여자’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회의 다음날인 9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금번 유엔 개발정상회의와 병행 개최되는 6개 상호대화 세션 중 ‘지속가능개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포용적 제도 구축’ 세션을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칠레 대통령」과 공동으로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 경험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구축의 중요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상호대화 주재 이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한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오찬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新)기후체제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성장 엔진 확보를 지원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도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치국으로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제69차 유엔 총회 계기 기후정상회의 재정 세션 공동주재에 이어, 금번 개발 정상회의 상호대화 세션을 공동주재하고,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들과 오찬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논의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개발의 핵심 이슈인 제도와 거버넌스에 있어서도 건설적으로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21세기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키다



1 2 3 4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 | 20150926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개발정상회의 계기에 외교부가 유엔개발계획(UNDP)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과 공동주최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개발경험인 새마을운동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21세기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신(新)농촌개발 패러다임'을 도출하여,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에 확산·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됐으며, 지속가능개발의제(SDGs) 중 핵심 이슈인 농촌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개회사 및 폐회사를 통해 ▲인센티브와 경쟁 ▲주민 참여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등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에 대해 소개하는 등 농촌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양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헬렌 클라크(Helen Clark) UNDP 총재」 등 국제기구 대표를 비롯해 새마을운동을 도입했거나 새마을사업 지원을 요청해 온 나라 가운데 라오스, 르완다, 페루, 베트남 등 4 개국 정상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역사적인 여정을 시작하다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박근혜 대통령은 뉴욕방문 둘째 날,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영어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5월 인천에서 개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고, ▲교육을 통한 개인의 삶 변화 ▲모두가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는 세상 실현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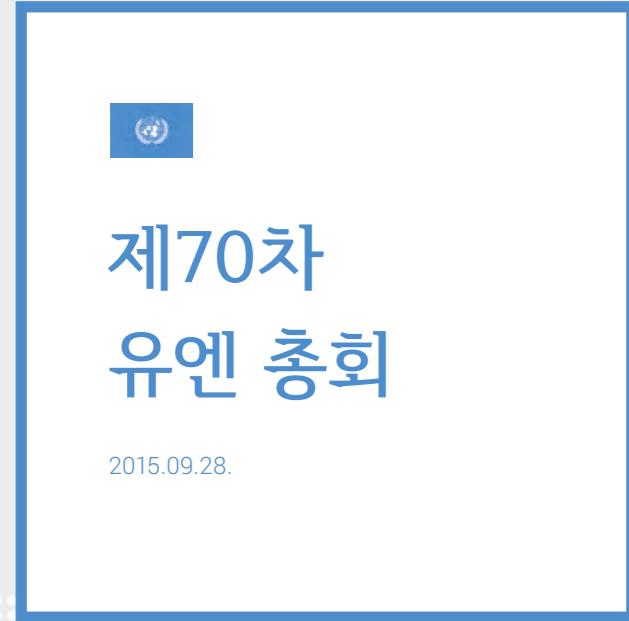
박 대통령은 “교육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굳건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챕터를 계기로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1 2 3

글로벌교육 우선구상 고위급회의 | 20150926





개발정상회의
관련 일정

유엔 총회
기조연설

유엔 사무총장
주최 오찬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



“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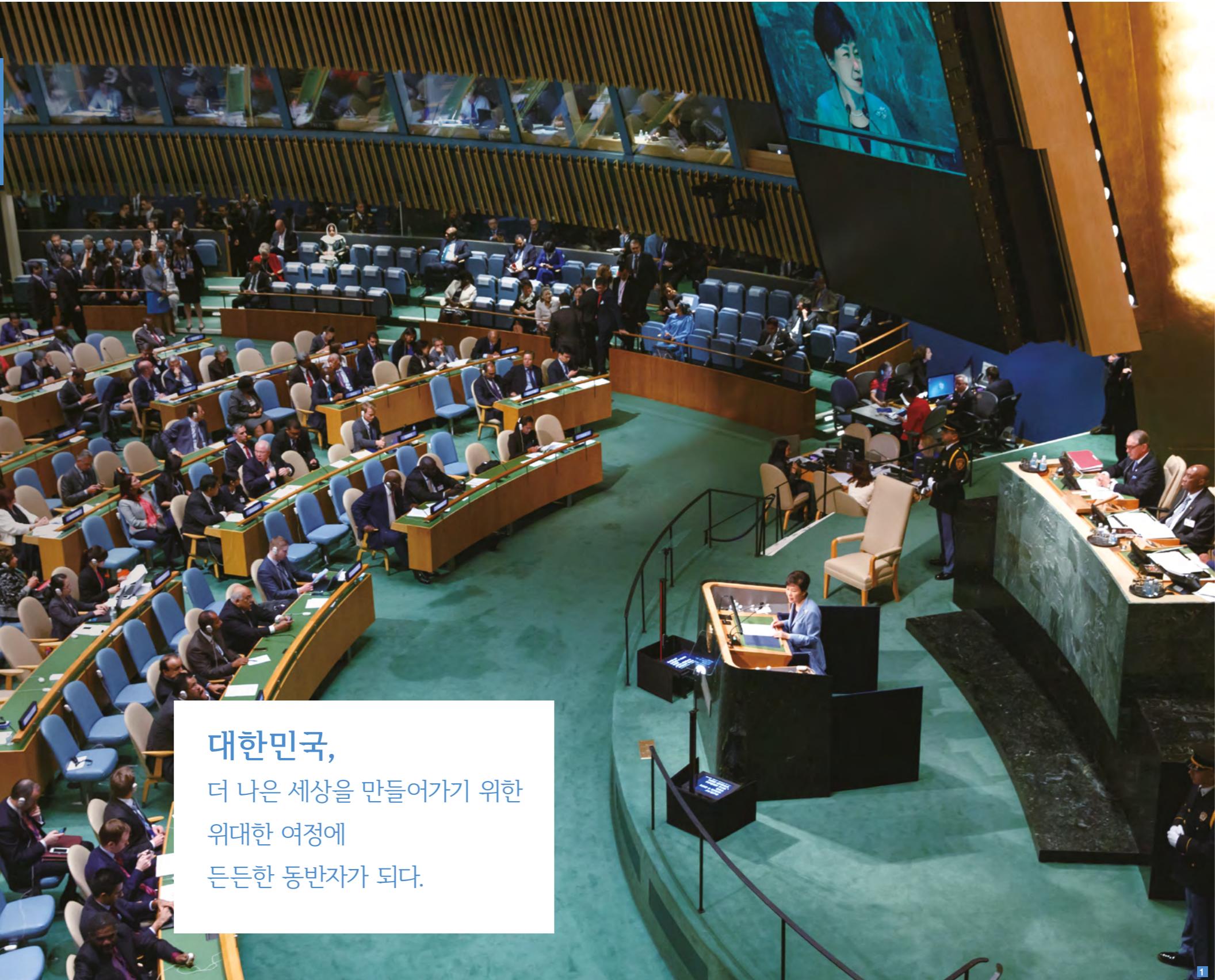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위대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중

유엔 총회
기조연설

대한민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위대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다.



박근혜 대통령은 뉴욕방문 마지막 날,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유엔 창설 70주년을 축하하고, 세계평화, 인권 창달 등 유엔이 달성해 온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는 해인 만큼,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최한 공식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초청한 각국 정상들과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등 11명의 정상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 상호 관심사에 대해 활담을 나눴다.

금번 유엔 총회 참석은 대한민국이 중견국가이며 소프트 파워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글로벌 어젠다를 추구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박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북핵·북한 인권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1 2
유엔 총회 기조연설 | 20150928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



1 2 3

유엔 평화유지 정상회의 | 20150928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동주최하는 <평화유지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Peace-keeping)>에 참석했다.

<평화유지 정상회의>는 최근 분쟁 및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국제안보 환경 아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비롯한 유엔의 제반 평화활동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는 약 50개국 정상들이 모여 동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건지원과 인도적 활동 관련 추가 기여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등과 같이 분쟁지역을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협력체와의 유대 강화 ▲유엔의 분쟁 예방과 평화 구축 활동에 재정적 지원 확대 등 유엔 평화활동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유엔 평화활동을 위한 기여방안을 공약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 지구촌 행복 외교 강화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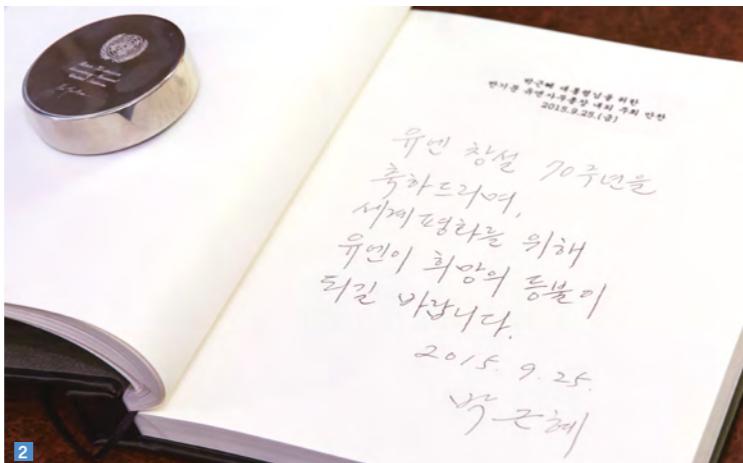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및 만찬



박근혜 대통령은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 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첫 일정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다. 유엔 총회 공식 일정에 앞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남으로써 주요 현안 및 과제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는 의미 있는 자리 마련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면담 및 만찬을 통해, ▲ 한·유엔 협력관계 ▲지속 가능한 개발, 기후변화 등 주요 국제현안 ▲핵비확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금년도 유엔 창설 70주년과 우리의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와 유엔과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유엔 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모색했다.

면담 이후 이어진 사무총장 주최 만찬에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도 참석해서 우리나라와 세계은행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1 2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면담 및 만찬 | 20150925

02

한·파키스탄 정상회담



1 2 한·파키스탄 정상회담 | 20150927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던 9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무하마드 나와즈 샤리프(Muhammad Nawaz Sharif) 파키스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외교, 경제·통상, 에너지, 개발협력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파키스탄은 인구 1.8억명(세계 6위)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에너지, 항만개발, 도시교통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며, “전략적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의 틀을 제도화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샤리프 총리」는 외교당국간 장관급 전략대화 신설을 제안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의견에 화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 정상의 취임 이래 개최된 첫 정상회담으로서 1983년 양국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양국간 호혜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성과

01

파키스탄 경제개발을 위한 기초인프라로 집중 추진 중인 발전소 건설사업 (다수 수력발전소/잠수로 석탄발전소/발로키, 하벨리 복합 화력발전소 등 52.3억불 규모)에 우리 기업 참여 추진

02

항만(卡拉奇港 현대화), 교통분야 인프라(卡拉奇 간선버스 급행체계 교통정보시스템)에 우리 기업 참여 추진

03

신산업협력 다변화 및 교역·투자 확대
▪ FTA 민간 공동연구('15.7~), 시장조사단 파견('16년) 등 추진
▪ ICT, 수자원분야 등으로 EDCF 지원분야 확대,
▪ 섬유분야 협력 강화

03

한·덴마크 정상회담

2015.09.27.



작년 10월 밀라노 ASEM 정상회의 계기에 한·덴마크 정상회담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은 1년 만에 「라스뢰 케 라스무센(Lars Løkke Rasmussen) 덴마크 총리」를 다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과 아울러 북핵 문제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덴마크는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로서 우리의 녹색동맹국이다.

박 대통령은 수교 이후 양국관계가 꾸준히 심화되어 왔으며, 특히 「라스무센 총리」의 첫 임기 중이었던 201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녹색성장동맹 관계로 발전하여 협력강화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고, 최근의 경제관계 발전을 넘어 보건의료, 해운, 북극, 디자인, 클린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라스무센 총리」는 해양안전, 그린쉽, 북극 협력, 보건의료 등 협력의 다각화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고자 한다며, 열린마음으로 협력하면서 '공동의 행동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가자고 말했다.

금번 회담은 양 정상이 그간 구축해 온 개인적 유대관계를 토대로 미래 지향적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 성과

01

- 신산업협력 다변화 및 교역·투자 확대
 - 친환경선박, 디자인, 클린텍(풍력), 보건의료, 북극협력 등 추진
 - 15·4·4분기 산업협력 MOU 체결추진, 의료영상(MRI) 협력 MOU 추진

02

- 기후변화 대응, 해양안전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
 - 녹색성장동맹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후변화 협력 강화
 - 국제해사기구(IMO)가 도입 추진 중인 해양안전시스템 개발 협력 확대

04

한·나이지리아 정상회담

2015.09.27.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UN총회의 주안점인 경제개발 협력 등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와 교역규모('14년 44.7억불)가 가장 큰 나이지리아의 「무하마ду 부하리(Muhammadu Buhar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对테러, 부패척결, 경제, 영사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무역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양국간 교역 관계가 확대되고 있으나, 양국의 성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확대의 여지가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양국간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를 위한 나이지리아측 국내 절차의 조속한 완료와 해상광구 개발 사업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부하리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 나이지리아의 개발과 관련하여, 직업훈련 지원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제기한 현안 및 문제해결 방향에 공감하면서, 양국 교역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제 성과

01

- 경제개발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집중 추진 중인 발전소 건설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추진
 - 발전소 운영 관리(4개 발전소 약 6억불 규모)

02

- 신산업협력 다변화 및 교역·투자 확대
 -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속 발효, 해상광구 등 투자에 해소

05

석학과의 만찬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저녁, <코리아 소사이어티>, <미국 외교협회>, <아시아 소사이어티>를 포함한 뉴욕 소재 연구기관 대표 등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 및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 우리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석학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내 주요 연구기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우리 핵심 외교안보정책 및 한반도·동북아 주요 정세에 대한 美 여론주도층 내 이해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미 공공외교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 2 3 4
석학과의 만찬 | 20150926

06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 접견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외교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197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이 날 접견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에 관해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통일은 동북아 역내국가들간 협력의 통로를 열고,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키신저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접근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1 헨리 키신저 미국 전 국무장관 접견 | 20150926

뉴욕 한국문화원 방문

“

이번 뉴욕 한국문화원 방문이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우수 문화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프리미엄 국가 브랜드로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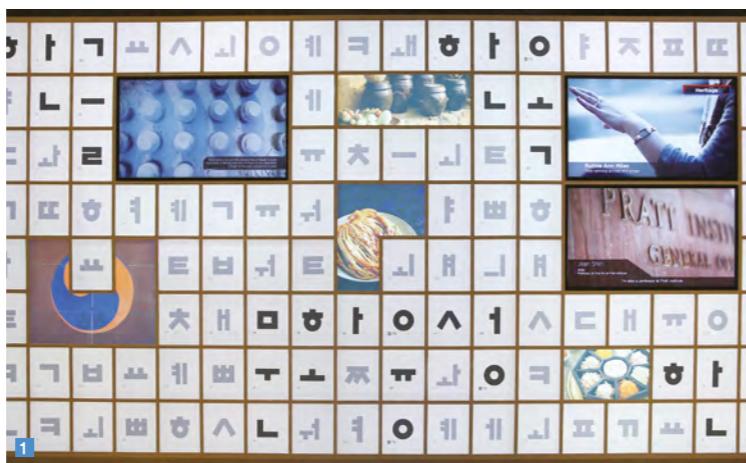
2015.10.05. 수석비서관회의

”

박근혜 대통령은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는 국가브랜드 전시 및 케이컬쳐(K-Culture) 체험행사에 참석했다. 재외 한국문화원이 개원한 이래 현직 대통령이 문화원을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두 날개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천명한 행보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문화원 1층에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한국·미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 다음'에 관한 릴레이 영상을 관람하고, 한식, 한복, 공예품 등 다양한 주제로 전시된 문화 콘텐츠를 둘러봤다.

전시 참관 후에는, 현지 문화예술계, 학계, 스포츠계, 패션계 인사 및 한국전쟁 참전용사, 학생 등으로 새롭게 발족한 'K-Culture 서포터즈'를 만나 "문화를 통해서 양국 국민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뉴욕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한국문화원에 방문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선진화의 개발단계를 넘어 문화융성을 이룩하고 있는 소프트파워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문화와 경제의 융합을 통한 한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1 2 3 4 5

뉴욕 한국문화원 방문 | 20150927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

의장님, 반기문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와 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인류의 미래 비전인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인류 사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구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성공적인 완결과
금번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에 노력해 오신
반기문 사무총장님과 각국 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 제시된 미래가 단순한 이상이 아
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실천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의 염중한 약속이라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고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개발의제에 담겨있는 17개 개발목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앞으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이행해 나가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중심에 놓고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되는 만큼,
각국은 여건에 맞는 이행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되
모든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개발목표 달성을 제도적 토대가 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법치, 인권과 양성평등의 원칙도
굳게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개발의제의 이행을 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과 시민사회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국의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와 분단의 시련 속에서도
불과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국가발전전략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확대해 갈 것입니다.

첫째, 한국은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개도국 소녀들을 위해
보건·교육 ODA 사업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을
내년에 공식 출범시키고, 향후 5년간 2억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녀를 포함한 미래세대에게 보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전략인 '새마을운동'을
'新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서,
개도국의 농촌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도국들의 현재 상황과 현실에 맞춰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과 노하우가 적절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UNDP 및 OECD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도국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개발협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효과적인 개발 재원 활용과 적절한 개발 협력 사업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는지를 입증하는 모범사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2년 출범한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은
개발협력의 효과를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부산 글로벌파트너십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협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 국제원조투명성기구에도 정식 가입할 예정입니다.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현실이 되려면
강력한 후속조치와 함께 평가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신뢰성 있는 견실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
건설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입니다.

각국의 대표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인류의 존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향한
15년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라는 인류의 여정이
위대한 결실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항상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연설문 02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 개회사

각국 정상 여러분,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님, 촐말리 사야손 라오스 대통령님, 쯔엉떤상 베트남 주석님,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님, 반기문 사무총장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님, 헬렌 클락 총재님, 마흐무두 모하엘딘 부총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새마을운동을 21세기 신(新)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소중한 자리가 마련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함께 새마을운동 국제화에 노력을 기울여주신 OECD와 UNDP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새마을운동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새마을운동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 개발 정책이자, 국민적 의식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반세기 전, 한국은 1인당 GDP가 100불에도 못 미쳤던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 정신 아래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열망으로 온 국민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이셨던 선친께서 새마을운동을 추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성공 요인들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서 국민과 나리를 바꿔 놓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첫 번째 요인은 인센티브와 경쟁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첫 해에 정부는 전국 33,000여개 마을에 같은 양의 시멘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하고 싶은 것을 해 보라, 단, 마을의 공동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떤 마을들은 정부가 준 시멘트에다 자신들의 노동력과 돈과 땅을 보태서 마을에 필요한 공동사업을 해내기 시작했고, 어떤 마을들은 시멘트는 받아놓고 별 성과를 못 냈습니다.

정부는 그 다음 해에는 잘하는 16,600개 마을에게만 지원을 했습니다. 오랜 가난으로 무기력했던 농민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단합하기 시작하면서, 농촌 근대화의 큰 물결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신뢰에 기반을 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는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철저히 차단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정치적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순수한 열정으로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의 비전과 의지가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새마을운동의 시너지는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의 참여였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을 양성하였고, 이들은 변화의 촉매자가 되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은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개도국들이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실천적인 농촌개발 전략 모델로 새마을운동을 전파했고, 그 동안 많은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제는 개발환경과 여건이 각기 다른 국가들의 현실에 맞춰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을 보편적 원칙과 행동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도국 농촌이 직면한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빈곤 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기여하도록 새마을운동의 내용과 실천 방식도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OECD와 UNDP가 새마을 운동을 기초로 ‘신(新)농촌개발 패러다임’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새마을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현재진행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눔, 봉사, 배려’의 새로운 공동체 운동으로, 지역의 풀뿌리 역량을 배가시키는 ‘창조운동’, ‘문화운동’으로,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새마을운동이 각국의 특수성과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글로벌 농촌개발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새마을 운동에 기초한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다른 개도국들은 물론, 유엔과 OECD,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연설문 03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 폐회사

각국 지도자님들과 국제기구 수장 여러분의
소중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각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실천한 경험들이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21세기 신(新)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그 가운데 90% 이상이 개도국입니다.
개도국 농촌인구의 60%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촌의 발전 없이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도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국가의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전략이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잡힌 개발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국민화합 전략이기도 합니다.

저는 새마을운동이 지구촌 곳곳에서 제2, 제3의 기적을 만들어 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
새마을운동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설문 04

2015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 기조연설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님과 귀빈 여러분,

어제 국제사회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채택하여
향후 15년을 이끌 교육 목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모두는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온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교육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지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2012년 출범한 GEFI는 그 동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확대에 노력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모든 어린이의 취학'과 '교육의 질 제고',
그리고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인 차원의 행동을 이끌어 냈습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고
인류의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나가고 있는 GEFI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
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지난 5월 한국의 인천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어
2030년을 향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교육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167개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교육 전문가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EFA)'과

교육 관련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여 온 노력의 성과와 교훈을 성찰하고,
앞으로 15년을 이끌어 갈 교육 의제와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교육의 질 향상과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를 위한 노력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교육목표가 최종 반영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이 포럼에서 논의된 성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목표를 실현하는데 더 많은 기여를 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교육을 통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개도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업학교와 고등기술학교 건립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한국에 초청하는 장학 사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개도국 학생들을 위해 유네스코와 함께
첨단 ICT를 활용한 교육혁신 지원 사업도 더욱 늘려 나갈 것입니다.



연설문 05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둘째, 모두가 공평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개도국 소녀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Better Life for Girl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교사가 부족한 국가에 한국인 교사 파견을 확대하여
한국의 교육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세번째로,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유엔 아카데믹임팩트(UNAI)와 협력하여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면서,
글로벌 문제에 함께 대응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한국은 교육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국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당장의 끼니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예산에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렸고,
우수한 인재 양성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열정과 투자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굳건한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채택을 계기로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교육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 나갑시다.

우리가 가는 항해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과 비전의 힘을 지속시켜 나갑시다.

한국은 교육 우선의 경험과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신뢰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먼저, 유엔 창설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리케토프트 덴마크 전(前) 국회의장님의
제70차 유엔총회 의장직 수임도 축하드립니다.

70년 전 전쟁의 참화를 딛고 탄생한 유엔은
전 세계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현실정치의 제약 속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두겠다는
유엔의 정신에 대한 신뢰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도전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인류를 위한 공공선 증진에 크나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블루헬멧(blue helmet)'의 유엔 PKO는
이 순간에도 국제평화와 안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 채택은 인권신장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고,
인권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은
인권보호 제도화의 괄목한 만한 진전이었습니다.

2000년에 시작한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수억 명의 인구를 절대 빈곤에서 탈출시킨

유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퇴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엔의 노력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도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기쁨과 번뇌가 교차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시련을 딛고 일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으며,
정부수립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늘 우리와 함께해 왔습니다.

국제평화와 인권증진, 공동번영이라는 유엔의 가치와 이상은
바로 우리의 비전이었고,
대한민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또한
유엔이 꿈꾸는 미래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야말로,
보다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유엔의 목표가
성공적으로 반영되어 온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엔과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류는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직도 크고 작은 분쟁과 극심한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SIL로 대표되는 극단주의 세력의 발호는
해결이 시급한 국제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정은 최근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이 보여주듯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난민 발생이라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범지구적인 기후변화는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고,
에볼라를 비롯한 감염병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으며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촌 어느 누구도 범세계적, 초국경적 위협과 도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는 국제질서가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제평화와 안보, 인권증진, 공동번영을 위해 유엔이라는 희망의 등불
이 전 세계에 빛을 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 현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강한 유엔을 만들어,
새로운 다자주의(renewed multilateralism)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자유와 인권, 정의, 법의 지배에 기초한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행복을 우리 외교의 핵심 가치로 추구하는 한국은
인류애의 이상과 이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면서
유엔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을 대응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이 주도하는 Post-2015의 새로운 개발의제 도출을 위한 노력도
바로 이러한 사람 중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흘 전,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발협력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지구촌 곳곳에서 제2, 제3의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의제 이행에 핵심역할을 담당할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갈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비약적인 발전의 발판이 된
새마을운동 경험을 개도국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새마을운동은 경쟁과 인센티브를 통해 자신감과 주인의식을 일깨우고,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사회의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도국 개발협력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 우리는 UNDP, OECD와 함께 새마을운동 특별행사를 열고, 개
도국 빈곤퇴치와 혁신적 지역공동체 건설에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개도국의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은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육성한 우수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루는
지속가능개발의 핵심과제입니다.

한국은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지원국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UNESCO와 함께 세계교육포럼(WEF)을 열어
2030년까지의 세계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인천선언' 채택을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분야에서의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갈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UNESCO와 함께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은 글로벌 보건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은 작년 말 에볼라 대응 긴급구호대를 시에라리온에 파견한 데 이
어, 3주 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회의
에서 개도국 역량 강화를 돋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1억불을 제공할 것
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5년간 2억불 규모의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뤄냈지만,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고 산림녹화에 노력한 결과,
1㏊당 나무 총량이 50년 동안 20배가 늘었고,
1972년부터는 도시 외곽에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환경과 발전의 조화를 이뤄왔습니다.

이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참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국제사회가 금년 12월로 예정된 기후변화총회에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말에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제출하였고,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참여해 가면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유치국으로
서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개도국에 전수하
면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최근 유엔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평화활동, 평화구축 및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참혹한 전쟁 경험과 남북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국은
평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유엔의 평화 수호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18개 임무단에 약 13,50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했고,
한국의 평화유지군은 모범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평화유지와
재건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엔과의 협의를 거쳐 PKO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며,
아프리카연합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입니다.

중동의 불안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 등을 위해서도
관련국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은 역내 국가들 간에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역내 국가들 간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안보 분야 협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어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일본의 방위안보법률은

역내국가 간 선린우호 관계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는 긴장과 대립이 지속되는 동북아를 가리켜, 지역 협력 메카니즘이 없는 '중요한 고리를 끊어버린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을 추진하는 이유도 끊어버린 고리를 다시 연결해서 동북아에 신뢰 구축과 협력 증진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현재 역내 국가들 사이에 원자력 안전, 재난관리,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협력 분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세계 평화와 협력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 핵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지난 7월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추가적인 도발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도발보다는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을 강행하는 것은 세계와 유엔이 추구하는 인류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대표단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유엔은 특히 인권보호와 자유신장을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는 '보호책임(R2P)' 개념을 채택했고, 르완다 및 구 유고 전범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으로 제노사이드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인류가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러한 보호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이 자리에서,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여성, 평화와 안보를 위한 안보리 결의 1325호'가 채택된 지 15년을 맞는 해로서, 국제사회가 분쟁 속의 여성 성폭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2차 대전 당시 혹독한 여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이제 몇 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 살아계실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들과 특별보고관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유엔에 담긴 인류애를 향한 영원한 동반자 정신이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인권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끈 사안의 하나는 바로 북한 인권문제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채택뿐만 아니라 안보리에서도 논의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표단 여러분,

저는 작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단절의 상징인 DMZ에 평화의 꿈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인 세계생태평화공원을 건설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DMZ 지뢰도발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한 순간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직면한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남북한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8.25 합의를 이루어냈고,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선순환의 동력은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25 합의에 따라 당국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며칠 후인 10월 3일은 독일 국민들이 통일을 맞이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유엔이 1948년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통일된 한반도를 전세계가 축하해 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은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에서는 기차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이라는 철도여행이 있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큰 감동과 감격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철로는 굳게 닫혀 있어서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활짝 열어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유엔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한반도는 지구촌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70년 전 유엔 창설자들이 꿈꾸었던 평화와 인간 존엄의 이상이

한반도에서 통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평화 애호국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위대한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평화유지 정상회의 연설

버락 오바마 대통령님, 반기문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정상 여러분,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유엔 평화활동 참가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은 평화활동의 중요성을
그 어느 나라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유엔 평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저는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오늘 평화유지 정상회의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들의 힘을 모은다”는 유엔현장
의 목표 달성을 힘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오늘날 국제분쟁 양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폭력적 극단주의는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평화활동의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못합니다.

지난 6월 유엔 평화활동에 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가 제시한 대로
유엔 평화활동은 분쟁 예방과 분쟁의 근원 해결, 재발방지를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유엔 평화활동의 기획과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평화활동의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한국은 분쟁지역의 재건지원과 인도적 활동을 위해
공병 부대를 추가로 파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평화유지군은 레바논, 아이티, 남수단 등에서
'진정한 평화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깃든다'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에 중점을 둔 특유의 안정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둘째, 분쟁지역을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협력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내 평화유지활동의 역량 제고를 위해 아프리카연합
(AU)을 통해 레벨2급 의료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의장국이자
평화구축위원회(PBC) 위원국으로서
유엔의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국 정상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분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항구적 평화를 향한 열망과 노력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호하겠다'는
유엔 현장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계기로 평화활동 강화 의지를 새롭게 결집하고,
우리 모두가 더욱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엔이 1950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단결했던 것처럼,
한국은 유엔 평화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 2015

2015

박근혜 대통령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

발행일
2015.10.

2015

박근혜 대통령
유엔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유엔총회 참석
